

더 깊어지는 —————

2024
Vol. 272

이웃사랑





YouTube



Instagram



홈페이지

더 깊어지는

이웃사랑

2024
Vol. 272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04

You make me warm

예수병원 공공의료사업

06

센터 건문록

재활센터

10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12

질병과 치료

재활의학과

이정후 · 유기배 · 김은실 과장

18

병동소개

95병동

20

선교국 소식

제이크루 찬양예배

제5회 간호대생 선교캠프

2024 상반기 예수병원 선교훈련

22

동문과 함께

박영삼 원장

24

그곳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

26

선교 칼럼

김병선 선교국장

28

환자가 뽑은 명의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

소화기내과 이원동 과장

간담체외과 김우영·이유니 과장

29

내가 사랑한 주인공

적정진료심사와 박옥자

30

We are PMC

예수병원 협력병원 소개

31

언론 속 PMC

PMC 뉴스

36

후원 캠페인

건강한 미래 후원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YOU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 예수병원
우리는 아픔을 보듬어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MAKE ME WARM

예수병원 공공의료사업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장애친화의료기관 장애친화산부인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환자안전센터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2026년 완공 예정)



최초에서 최상으로 전통과 실력이 공존하다

재활센터

예수병원 재활의학과는 1972년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의학부를 개설한 이래 재활의학 분야의 선구자적 행보를 이어왔다. 2014년 재활센터 개소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2019년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2021 전북권역 재활병원에 선정되며 재활 치료 중심으로 우뚝 섰다. 오랜 역사와 우수한 의료진을 토대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로 자리매김한 재활센터를 소개한다.

오랜 역사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예수병원 재활의학과는 1972년 Dr. John Shaw가 한국 최초로 개설한 이래 국내 재활의학과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후 오랜 역사와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재활의학과로 자리매김했다. 1974년 ‘재활의학 연구소’를 개설해 재활의학의 초석을 마련했고, 1980년 한국 최초로 재활전문병동, 작업치료, 물리치료, 의지보조기팀, 사회사업팀 등 다양한 재활 치료 서비스가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북완주 장애인 재활사업’을 자체 개발해 시행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으로 발전시켜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132병상의 재활센터를 개소해 더욱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 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예수병원이 국내 재활의학과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중요한 이정표였다. 역량을 인정받아 2019년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 2021년 전북권역 재활병원에 선정되면서 전북권역 재활 치료 중심으로 우뚝 섰다.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다. 재활의학과는 이를 위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보조기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재활팀을 꾸려 치료 방향을 논의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환자와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는다. 다양한 질환과 상태에 따라 맞춤형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데, 중추신경계 재활을 비롯해 소아·신경근육질환·절단 환자·심폐·스포츠·노인 재활, 근골격계 통증 관리 등을 포함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널리 말씀을 전하는

국내외 연구 협력체제로 진행하는 활발한 연구 활동도 눈에 띈다. 미국 Maryland 대학과 상지 로봇 개발을 비롯해 Johns Hopkins 병원과도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KAIST와 GIST와는 뇌신경재활 분야에서 공동 임상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에 힘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예수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고, 18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재활의학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매해 재활 전문 간호 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재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2019년 전국 78개 재활의학과 수련병원 평가에서 전국 6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선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도 빼놓을 수 없다. 1898년 마티 잉골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예수병원을 세우신 것처럼 올해 캄보디아 예수병원에 재활의학과를 개설해 현지 주민들에게 선진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폭넓은 시야와 다학제 접근으로

재활의학과 특성상 환자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 환자 대다수가 여러 기저 질환을 지닌 노인이기에 다른 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언젠가 팔다리 힘이 빠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과와 병원을 전전한 끝에 경추 추간판 감압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종합적으로 상태를 평가한 결과, 근육병 질환으로 밝혀졌다. 중추신경계 질환부터 말초신경계·근골격계 질환을 모두 진료하는 유일한 과로서 폭넓은 시야를 갖춘 덕에 다각도로 분석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다. 이처럼 폭넓은 시야와 다학제 접근은 재활의학과와 핵심으로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로 치료의 질을 높인다

전통적인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최신식 재활 치료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2014년 이미 재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재활 치료를 시행하며 환자들에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해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로봇산업진흥청 사업에 3회 연속 선정되면서 보행재활로봇, 상지재활로봇,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근골격계 재활로봇 등 최신 로봇 재활 치료 장비를 도입해 치료의 질을 한층 높였다. 이처럼 예수병원 재활의학과는 종합로봇재활센터를 목표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마침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활 의료 거점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살린다



전북권역재활병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예수병원은 한국 재활의학의 시초이자 중심으로서 오랜 세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지역민의 재활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다. 이 두 사업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라는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로 연결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건립 과정에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병원은 이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선정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전체의 약 7%에 불과하고, 대기 환자가 많은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6.2%로 증가했다. 장애인 비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재활병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병원은 2019년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연계하여 치료의 효율성,

효과를 고려하여 연계 건립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연계 건립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시설설계 심의,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 하였다. 현재는 연계건립과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방재정투자 재심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중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 선정 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자재 값 상승 및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다. 급기야 계획된 예산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병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며 건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조속한 행정절차 완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합심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대한 결실로 지난 7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급격한 사업비 증가로 지지부진하던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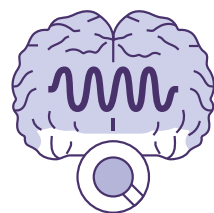
희망을 세워, 기적을 만든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6,885.18㎡에 낮병동 21병상, 입원병동 150병상, 외래 진료실 및 각종 최첨단 치료기구 등을 운영하여 집중

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사회와 가정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첨단 재활 로봇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존 치료 로봇과 함께 로봇 재활 치료 영역을 전문화하고 확장시켜 로봇치료 전문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2층에는 수치료실을 배치하여 물을 이용한 보행 훈련과 균형 감각 치료를 실시한다. 전북권 유일의 치료 공간인 ‘Transit house’를 통해 빠른 일상회복과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환자들의 사회 적응과 가정 복귀를 돕는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확보와 학습권 보장기회를 주고자 지상 5층에는 병원학교를 개교 하고자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처럼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의학과 전문의와 재활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전북권역 내 전연령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 공공의료 재활 전달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통합재활병원 설립을 통해 예수병원은 무너져 가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며 의료기관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인스타그램 계정 @pmc_seum





조기 치료가 중요한 뇌졸중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 이정후 과장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겪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한쪽 뇌 반구가 손상될 때 반대쪽 신체 절반이 마비되는 편마비입니다. 가령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생기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 외에도 마비된 쪽의 감각 장애나 신경인성 통증, 균형·조정 장애를 비롯해 언어·인지·삼킴·배뇨와 배변 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훈련과 함께 보조도구 사용법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삼킴 훈련은 안전한 식사를 위한 자세와 방법, 적절한 식이 선택 훈련 등이 있습니다. 통증 치료는 신경인성 통증과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합니다.

재활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즉 환자 상태가 안정된 직후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발병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 초기 재활 평가를 진행하며, 환자가 의학적으로 안정되면 곧바로 시작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초기 몇 주는 기능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때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하면 최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재활 치료를 통해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과 기능 회복 최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근육 위축, 관절구축, 욕창, 폐렴 등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기능적 독립성 회복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동·작업·인지·언어·삼킴(연하)·통증 치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진행됩니다. 운동 치료는 근력 강화 운동, 균형과 보행 훈련, 관절 가동성 운동 등을 시행합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부터 상지 근력 강화, 손 기능 훈련, 보조장비가 필요한 환자의 장비 사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지 치료는 손상된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해 기억 훈련, 주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훈련 등으로 이뤄집니다. 언어치료는 말하기를 비롯해 이해 능력 향상, 의사소통





뇌성마비 진단과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유기배 과장

뇌성마비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발달지연이나 이상 행동을 주소로 내원한 아동의 병력을 청취하고 임상 검진을 시행한 후, 필요한 검사들을 처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합니다. 아동이 첫 돌 즈음까지 이루어지는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등의 운동 발달이 같은 또래보다 늦은 경우, 한 살 이전에 한쪽 손 혹은 한쪽 팔과 다리를 유난히 덜 사용하는 경우, 나이에 비해 너무 일찍 머리를 가누는 듯 보이면서 머리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거나 항상 까치발을 서는 경우 운동발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신경학적 검진으로 환아의 자세와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근육의 긴장도와 나이에 맞는 원시반사의 발현·소멸을 확인하고, 심부건반사나 발바닥 반사, 발목간대성 경련 등의 소견과 낙하산 반사나 자세 반응 혹은 보호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뇌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다른 질환과 감별진단을 하기 위해 뇌 자기공명영상이나 뇌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액검사나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아동의 뇌는 가소성(brain plasticity)과 병변에 대한 적응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2년 이내에, 가능한 빠르게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학습된 비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바른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발달 과제를 성취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치료는 삶의 전반에 걸쳐 생의 주기별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부모 및 보호자들과 의료진 사이의 적극적이고 밀착된 협력은 부모들이 받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아이가 부모의 안정된 정서적 지지를 받게 하며, 병원에서의 치료가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로 이어지는 포괄적 재활을 이루게 합니다.

뇌성마비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뇌성마비 환아에게는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팀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조기나 보조도구의 사용,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외에도 승마치료, 수중치료, 아텔리웃 치료, 고압산소치료, 미술치료 등 많은 보완·대체의학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근골격계의 변형을 교정하는 정형외과적 수술, 경직조절을 위한 선택적 후근 절제술, 척수강 내 바크로펜 펌프와 같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근골격계 이차적 변형과 퇴행성 변화 및 그에 따른 통증이 조기에 시작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성인이 된 뇌성마비 환자에게도 신체의 퇴행에 따른 재활치료와 적절한 보조도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재활

재활의학과 김은실 과장

노인 재활이 필요한 대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은 크게 두 부류 환자로 나뉘는데요, 장애가 생긴 노인 환자와 노인이 된 장애인들입니다. 이 경우 장애는 두 배 이상, 활동 제한은 네 배 이상 많으며 입원 빈도와 기간도 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아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보호자가 세 배 이상 필요하게 되므로 노인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화에 따른 재활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움직임의 지속을 통한 기능의 '유지'입니다. 노화가 지속되는 와중에 허리나 무릎 통증, 거동이 어려운 환경, 낙상 경험 등 여러 이유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때 환자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 보충, 통증 해결, 수면보완 등도 함께 이뤄지도록 합니다.

재활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일정한 활동을 유지한다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 노인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전반적 평가입니다. 과거력이나 생활습관, 투약 이력이 모두 다르기에 영양·약물·기능·인지 평가 등을 통해 환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와 1L 이상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다약제 교정을 시행합니다. 환자 기능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조도구들을 사용하여 보완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전반적 평가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 3~4회 유산소 운동, 주 3회 근력운동을 권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환자를 지치게 할 수 있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맞춤 재활간호로 ‘달리다곰’을 실현하다

95병동

1980년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동을 설립한 예수병원.
바로 95병동의 시작이다. 그 오랜 세월 재활의
선구자로서 최상의 간호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왔다. 환자의 마음 건강까지
세심히 챙기는 95병동을 만나본다.

절실한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다양한 환자군을
담당하는 95병동. 다양한 맞춤 재활간호를 통한 달리
다곰을 실현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변화된 삶의 적응
을 돕는다는 비전 아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재
활이 절실한 환자들의 마음을 알기에 언제나 진심 어
린 자세를 잃지 않는다. 재활환자 특성상 편마비나 사
지 마비 환자가 많아 낙상이나 욕창, 배변·배뇨 관리
를 세심하게 신경 쓴다. 컨디션 조절을 위한 수면 관
리도 꼼꼼히 챙긴다. 24시간 상주하며 물리치료와 작
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재활 치료를 보
호자 혹은 간병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많은 치료를

받느라 지치기도 하고, 변화된 몸 상태로 심리적인 고
통까지 받는 환자와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질환에 따른 특성을 꼼꼼히 파악해

질환에 따라 후유증도 다르고, 각각 다른 재활이 필
요하기에 그에 맞는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재활하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환자군은 뇌 병변, 척
수·척추 질환, 신경인성 장애, 근골격계질환, 소아 재
활환자 등으로 이에 따른 맞춤형 간호는 필수다. 시간
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장기 환자들이 지치지 않도
록 지지하며 관심을 보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

하고 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준비하는 환자들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한다. 잊지 못할 환자들도 많다. 언
젠가 튜브로 경관식이이며 혼자 앉지도 못하고 울음
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는 재활 치료의 중요
성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다. 지속적인 재활 치료로 더
듬거리지만 말을 하고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
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호전되어 걸어서 퇴원할 수 있
었다. 아이와 보호자, 그리고 95병동 구성원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그런 결과를 만들
어내기 위해 언제나 환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으로 돌보고 있다.



+ MINI INTERVIEW



고효숙 수간호사

95병동은 재활 병동답게 환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게 최우선인
병동입니다. 예수님 혹은 부모님이
입원하셨다는 마음으로 재활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은 간호사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하는
환자분들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자향 간호사

환자에게 “의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라포 형성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재활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재활 병동 간호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포근한 집처럼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

박영삼세이유외과 박영삼 원장

세상에서 나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름 아닌 가족이다. 그렇기에 그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다. 박영삼세이유외과 박영삼 원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인 25년을 보낸 예수병원은 편안하고 포근한 집과도 같다.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예수병원에서 차곡차곡 쌓은 귀한 경험은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집이자 고향, 그리고 교회였던 곳

“인턴과 레지턴트 생활을 포함해 예수병원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직장이라기보다는 집이자 고향이었습니다. 교회의 일부이기도 했지요.”

환한 미소로 예수병원을 떠올리는 박영삼 원장의 표정에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단순한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따뜻했던 기억들을 펼쳐놓는다. 합창단을 비롯해 관현악단, 축구부, 야구부 참 많은 활동을 했다고. 의료선교와 직원연수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많은 활동을 어떻게 다 해냈을까? 원동력은 ‘재미’였다. 바쁜 일과에 더해진 활동이 힘들 법도 하건만 박 원장은 그저 재밌었다며 웃었다.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덕분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직장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기도 했단다. 목사님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익숙했는데, 예수병원은 교회처럼 따뜻한 분위기여서 잘 맞았던 것 같다고.

여기에 환자와 친해지려는 노력도 더했다. 성탄 주간에는 산타 모자를 쓰고 진료하며 환자들의 마음에 온기를 지피고 웃음을 유발했다. 처음엔 쑥스럽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벤트를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재 개그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평화동에서 왔다는 환자에게 “와, 평화로운 곳에서 오셔서 평화롭게 보이네요”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면 진료실엔 이내 웃음이 번졌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윤희유 역할을 했다.

너로 인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병원

지난해 6월 10일 문을 연 박영삼세이유외과는 유방·갑상선 전문병원이다. 평소 아재 개그를 즐기던 ‘언어의 연금술사’답게 병원 이름에도 큰 의미를 담았다. 영어로 ‘SAY YOU’를 연상시키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한자 세상 세(世), 이로울 이(利)로써 이(以)와 영어로 너라는 뜻의 유(YOU)의 조합을 떠올려 보라. ‘너로 인해 세상이 이롭다’로 풀이할 수 있다. 너를 도구 삼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환자를 치료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박영삼 원장의 굳은 다짐이 느껴진다.

실제로 박영삼세이유외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병원에서 쌓인 귀한 경험에서 비롯된 실력에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더해진

까닭이다. 여성을 주로 상대하기에 여느 병원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은 기본이요,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편안한 분위기에 최신식 기구와 장비를 갖춘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유방암과 갑상선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뤄지는데 당일엔 조직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악성 종양일 경우 예수병원으로 전원하며 오랜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한 동료와 선·후배들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혼자 떠나온 미안한 마음과 함께 예수병원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새로운 출발에 나선 박영삼세이유외과와 예수병원이 함께 더 이로운 길을 나아가고 싶다는 다짐도 밝혔다.

“예수병원은 100년 넘게 진료와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해온 대로 지역민들에게 친숙하고, 낮은 곳을 찾아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셨으면 해요. 의료 발전은 물론, 선교 역시 선도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영삼 원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연수
2013~2014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 유방암 종양내과 연수
(전) 예수병원 유방갑상선혈관외과 과장
(전) 예수병원 의료관리실장, 감염관리실장 및 기획실 차장
(전) 예수병원 교육부 차장
(전) 예수병원 IRB 위원
(전)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전)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 논문심사위원
(전) Journal of Breast Disease 논문심사위원
(전) 병원인증평가위원

(현) 대한 외과학회 정회원
(현) 한국 유방암학회 분과전문의
(현) 대한 종양외과학회 인정의
(현) 대한 갑상선 내분비외과 학회 정회원
(현) 대한 갑상선학회 평생회원
(현) 대한 두경부외과학회 정회원
(현) 대한 혈관외과학회 정회원
(현) 대한 투석접근학회 정회원
(현) 전북 CBS 의학 자문위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오래된 예배당

김제 금산교회

익숙한 동네를 걷다 만나는 역사적 장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저 스치듯 지나쳤던 곳에 새로운 의미가 담긴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지나온 시간이 켜켜이 쌓인 김제 금산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오래된 예배당을 차분히 둘러보며 신분을 뛰어넘는 놀라운 종교의 힘을 느껴보기를.



를 전파했다는 생각에 마음에 맑고 묵직한 울림이 퍼진다. 가만히 눈을 감고 테이트 선교사와 조덕삼 장로의 만남부터 이자의 목사로 이어지는 역사를 복기한다. 마음에 믿음을 다시 새기며 발걸음을 옮긴다. 종탑 뒤 한옥 건물이 바로 조덕삼 장로가 세운 교회당이다. ㄱ자형 한옥은 총 일곱 칸으로 남쪽으로 다섯 칸, 동쪽으로 두 칸으로 나뉘어 있다. 이제는 흐릿해진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조선 시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구조다. 남쪽은 남자, 동쪽은 여자 신도 자리로 각각 나눠 예배를 보도록 설계했다. 당연히 출입구도 다르고,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휘장을 쳐놨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엄격한 유교 사회에 기독교라는 서양 문화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토착화된 것을 잘 보여준다. 언뜻 남녀차별로 비칠 수 있지만, 실상은 여성 신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교회에 다닌다고 행여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남녀 자리를 확실히 구분해놓은 게다. 금산교회를 ‘ㄱ자 교회’라 불리게 한 한옥 교회당 맞은편에는 1988년에 지은 교회 본당과 사택이 자리한다. 키 낮은 한옥과 하늘 향해 솟은 현대식 건물 사이에서 복음의 흐름을 읽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끊기거나 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 흐름을. 어쩌면 이게 바로 금산교회를 찾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이다.

세 사람의 마음이 남긴 또렷한 흔적

김제 금산교회의 시작에는 세 사람이 존재한다. 테이트 선교사, 조덕삼 장로, 그리고 이자의 목사. 이들의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적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다. 테이트는 1892년 미국 남장로교단이 대한민국에 파송한 일곱 명의 선교사 중 한 명이다.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로 전주에서 시작한 선교 활동을 전북 각지로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에서 부안, 고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김제 금산면을 지나다 동네 유지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된다. 서양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조선의 유지는 기꺼이 사랑채를 내주며 예배를 보게 한다. 그때가 1905년, 금산교회가 첫발을 내디디던 순간이다. 남은 한 사람 이자의는 조덕삼 마방을 관리하던 머슴이었다. 일찍이 그의 영특함을 눈여겨본 조덕삼은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선출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머슴 이자의의 주인 조덕삼보다 높은 지지를 얻어 장로에 뽑힌 것. 머슴에 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할 법도 하건만, 되려 동요하는 교인들 앞에서 이자의의 높은 신앙심을 추앙한다. 이후 이자의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학비는 물론 가족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 이후 1908년 조덕삼이 ㄱ자형 한옥으로 지은 교회당이 지금의 금산교회다. 그러니까 무려 116년이라는 역사가 담겨 있는 셈이다.

시대를 넘어 오래도록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

신분을 뛰어넘은 숭고한 종교의 힘을 느끼며 금산교회로 향하니 돌담 너머 나무 종탑이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그 뒤로 보이는 한옥과 현대식 본당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특별한 공간을 찬찬히 살핀다. 색이 바래고 곳곳이 갈라진 나무 종탑 앞에 서니 116년이라는 세월이 스친다. 그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곳곳이 견디며 복음의 소리



선교병원의 정체성, 역할과 미래

제2편

글 김병선 선교국장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 또한 선교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파송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 받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활동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한 것처럼 교회가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선교다”

- 존 스토틀 -

선교병원의 역할

여러 형태의 국내외 선교병원은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다. 먼저 국내의 선교병원은 지속적으로 선교적 열정을 가진 의료선교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의료선교사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행정, 의료전산, 보건 사업 등을 아우르는 여러 스펙트럼의 의료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포함한다. 의료선교는 의료인만으로 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관심이 창조 세계와 사람에게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한다. 선교병원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돕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서포트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내 의료인들을 의학적, 영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의료인들을 길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한 손에는 의료의 전문성을 다른 한 손에는 선교의 열정을 지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젊은 의료인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이들이 의료라는 전문성을 갖춰가는 과정 중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서포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둘째, 해외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심는 역할
해외의 의료인들을 초청하고 교육하고 복음을 심는 허브 역할은 선교병원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단기 의료선교를 나가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의 의료 시

스템 안에 해외 의료인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 먼저는 한국을 선택하고 직접 오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무르는 이들에게는 의료를 교육하기도 효과적이며 업무 외의 시간 동안 복음 안에 교제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다. 우리는 이들을 ‘환대(hospitality)’해야 한다. 복음적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의학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통해 사랑의 빛을 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선교훈련 및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병원은 직원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모든 직원을 다 훈련할 수는 없겠지만, 자원하는 이들과 열정이 있는 이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훈련해야 한다. 좋은 리더, 좋은 사역자를 많이 세워가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모양의 사역자로 활발히 사역하도록 돕고, 헌신자를 파송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주하게 되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모라비아인들이 10% 이상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그들이 아프거나 순교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 선교지로 갔던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늘 선교지로 파송될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 아울러 선교병원은 ‘의료 선교사’ 뿐 아니라 ‘의료행정 선교사’도 훈련하고 길러야 한다. 또한 선교병원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 특히 해외에 세워진 선교병원들은 일차적으로 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복음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사명이자 파송된 목적이기도 하다.

넷째,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
이미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은 재교육 및 건강관리,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해외에서 건강의 문제를 겪는 선교사들이 많다. 또한 의료선교사들은 주기적인 재교육과 의료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이는 선교병원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신하여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을 체크해 주며 치료해 주는 병원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 취약 계층을 돌보는 일
어쩌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역일 수 있다. 현대의 병원들은 돈이 안되는 진료나 업무는 안하려 한다.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군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어두운 면일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 하셨다. 선교병원은 수익을 내야 하지만 그것만을 가치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늘 마음 쓰셨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선교병원의 미래

미래의 선교병원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까? 먼저는 재정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나 단체는 찾기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해

외 선교지의 의료 수준과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단순한 1차 진료 위주의 병원은 현지 병원과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전문성을 갖춘 분과 위주의 전문병원 형태가 적합할 것이고 설립과 유지에 있어 현실적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형태의 의료선교로서 의료선교사들이 현지의 병원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업적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형태도 충분히 영향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병원의 행정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사람을 길러내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후 현지의 종합병원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있다. 이들은 선교사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깊은 일터에서 무명의 선교사(Anonymous missionary)로 살아가다. 어쩌면 건물과 하드웨어를 벗어나 이러한 의료인들이 네트워킹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선교 패러다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냥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사역자로서의 제자들을 세워가야 한다. 의학적 전문성과 사역자로서의 영성이 균형 있게 준비된 ‘의료 선교사’와 ‘의료 행정 선교사’들이 많이 준비되길 기도한다. 한국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타 문화권과 다른 대륙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기대한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의료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을 써 가실 것이다.



소화기내과(चे장담도전문의)

환자가 뽑은 명의

믿을 수 있는 예수병원 의료진, 환자를 유심히 살펴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주고 깊은 공감으로 소통한다. 예수병원 환우들이 추천한 이 달의 명의를 소개한다.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까지 불안함이 컸지만 과장님의 말씀과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진료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퇴원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은님



소화기내과 이원동 과장

고령의 아버지의 위 종양에 대한 상담과 진료, 시술을 위해 내원했고 의학적, 신체적, 향후 예후에 대한 소견과 시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서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깊은 하부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판명되었지만, 이제 제거로 잘 회복하고 예전 같은 모습입니다. 이원동 과장님과 같은 의사를 만나 아버지의 질병이 완전히 쾌유되었고 과장님을 응원하며 지속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인술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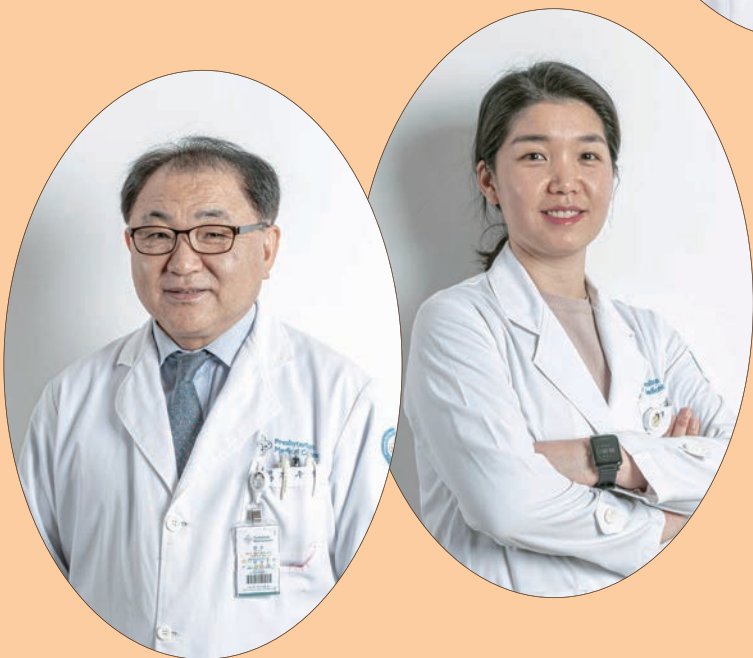
신기님



간담체외과 김우영 과장 & 이유니 과장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명을 받고 너무 만족합니다. 잘 치료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님, 홍식님



노래가 끝나면 삶이 시작된다

적정진료심사와 박옥자

영화 <마리아 칼라스>는 53세로 불꽃같은 생을 마감한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사랑과 노래를 다크로 담아낸 예술영화입니다. 인터뷰 화면, 희귀본 음반 영상, 미공개 편지, 무대 밖 삶을 생생하게 한 편의 영화로 풀어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Maria by Callas: In Her Own Words)
감독 톰 볼프 / 프랑스 / 2017 / 114min

전설이 된 오페라 가수의 파란만장한 삶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에서 천재적인 재능과 호소력 깊은 연기로 독보적이었던 인물입니다. 평소 칼라스를 좋아했지만 영화동아리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관객동아리 씨네몽> 활동 중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를 모르더라도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칼라스의 공연을 보며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지친 일상이 위로 받는 힘이 느껴집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녀의 신비로운 음색이 뾰족한 마음을 등글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고나 할까요. 전설적인 디바로 불리운 천재적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훈련량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표현력, 힘과 카리스마를 모두 갖춘 절대적인 소프라노, 칼라스를 소프라노 아솔루타(soprano assoluta)라고 부릅니다.

사랑 받는 여자이고 싶은 소박한 마리아와 소프라노 아솔루타가 되고 싶은 음악가 칼라스. 두 자아의 대립과 모순속에서 조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활화산같은 삶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본캐와 동아리 활동인으로서의 부캐에 조화를 이루고자했던 저의 신념과 맞닿은 부분입니다.

장르는 영화이지만 평소 오페라를 접하고 싶었던 분에게 강추합니다. 오페라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무심히 들었던 아리아를 소프라노 아솔루타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듣는 귀호강과 각색이 아닌 당시 자료화면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공연들이 주옥같은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보는듯한 재미를 더합니다.

고혹적인 칼라스가 부르는 <하바네라>를 듣는다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선율과 칼라스의 천가지 표정에 폭 빠지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몸안에 숨어있던 오페라에 대한 열정이 싹들지 모릅니다.



365의원 (사)대한결핵협회전라북도지부 복십자의원 (사)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특별자치도지회가족보건의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JB혈관외과
PSI한솔비뇨기과의원 ㉠ 가족사랑요양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호랑이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만춘내과 강북삼성병원 강성호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신병가정의학과의원 강원태내과의원 강정성내과의원 강초희유외과의원 강충희제통의원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건강나라요양병원 건강제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연합의원 고산성모의원 고창노인요양병원 고창종합병원 골든카운티요양병원
곽병찬가정의학과의원 구세의원 국민내과의원 군산정읍성신병원 군산베스트한방병원 군산속편한내과의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군산의료원 군산중앙의원
군산학문외과의원 군산현대이비인후과의원 굿모닝비뇨기과의원 굿모닝의원 권철내과의원 그레이스산부인과 기운찬마취통증의학과 김연함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귀한내과의원 김내과의원 김문중내과의원 김문철내과의원 김봉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비뇨기과의원 김성국내과의원 김양박이비인후과의원
김양호내과의원 김완길이비인후과의원 김용성내과의원 김유창재활의학과의원 김임신경정신과의원 김제오케이의원 김제중앙병원 김중구내과의원
김종민가정의학과의원 김중범소아청소년과의원 김태수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현중내과의원 김형식내과의원 김혜영소아청소년과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
㉡ 김희정내과의원 나눔요양병원 나방주내과의원 나영군내과 나은요양병원 남부연합의원 남원의료원 남원정형외과의원 노금석외과의원 누가외과연합의원
누가정형외과의원 누가한방병원 불편한내과의원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 다나이비인후과의원 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다사랑병원 다솔아동병원
대성의원 대자인병원 더건강한내과의원 더나은마디의원 더세움병원 덕진내과의원 덕진재활의학과의원 도신경외과의원 도은정형외과의원 동군산병원
동산정형외과의원 동아의원 두드림내과의원 드림솔병원 드림연합의원 ㉣ 라온소아청소년과의원 리엔박소아청소년과의원 ㉤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음의평화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마음편한요양병원 만성연합내과산부인과의원 만인요양병원 맑은샘내과의원 맑은안과의원 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맘외과의원
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모아산부인과의원 무주신경외과의원 문실버요양병원 문이비인후과의원 미듬내과의원 미래내과의원 미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미즈아미산부인과의원 미즈웰형형치산부인과의원 민음병원 ㉥ 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바른비뇨의학과의원
바른영상의학과의원 박상배내과의원 박승민내과의원 박영삼세이유외과 박외과의원 박이비인후과의원 박일주내과의원 박정형외과의원 박종관비뇨의학과
박종혁민음병원 박천수정형외과의원 밝은안과의원 복음연합내과의원 분안과의원 봄빛소아청소년과의원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부안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사랑가정의학과의원 사랑요양병원 산호가정의학과의원 삼광의원 삼남재활의학과병원 삼봉척원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삼성가정의학과의원 삼성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삼성서울병원 새란산부인과의원 새봄가정의학과 새소망정형외과의원 새전주요양병원 서경락가정의학과의원
서기항치과의원 서복주내과의원 서비뇨기과의원 서신전주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서울대병원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영상의학과의원 서울정형외과의원 서지석이비인후과의원 세녀여성의원 석정웰파크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성모안과의원 성모요양병원
성모의원 성심의원 세나유의원 세미한병원 세브란스병원 소룡의원 소망가정의학과의원 소양제일의원 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함양) 손영돈내과의원 송대원신경과의원 송민주내과의원 송천수내과의원 송현섭소아청소년과의원 송호신내과의원 송희원산부인과의원
수병원 수요양병원 수피부과의원 시민의원 신경덕내과의원 신대균내과의원 신세계병원 신세계정형외과병원 신우종내과의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신통내과의원 실로암병원 실로암안과의원 쌍치의원 ㉧ 아남내과의원 아름다운피부과의원 아중요양병원 양빛나유외과의원 양윤정신경과의원 어의당한방병원
에덴산부인과의원 에코내과의원 에코산부인과 에코소아청소년과의원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엠마오사랑병원 연세가정의학과내과의원 연세김창훈내과의원
연세베스트신경외과의원 연세수가정의학과의원 연세안과의원 연수요양병원 연정형외과의원 연희내과의원 열린가정의학과의원 예송요양병원
예수가정의학과의원 예일소아청소년과의원 오강렬내과의원 오비뇨기과의원 오성수외과의원 오종용내과의원 온고을재활의학과병원 온누리연합내과의원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완주요양병원 왕원기이비인후과의원 용진가정의학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 우리가정의학과(오수) 우리노인전문병원
우리들사랑요양병원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우리들항외과 우리마디의원 우리요양병원 우리의원 우리항맥외과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자력병원 원평연합의원 위사랑연합내과의원 위이비인후과의원 위편안내과의원 유관희내과의원 유라인외과 유로병원
유비내과의원 유사랑외과의원 유앤장외과의원 윤성균내과의원 으뜸병원 은소아청소년과의원 은파요양병원 은헌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혜산부인과
이남심내과정형외과의원 이노플러스성형외과의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이덕수내과의원 이동엽진심내과 이명철정형외과의원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이수영내과의원 이순형내과의원 이승현내과의원 이안의원 이앤오내과의원 이영승내과의원 이영식이비인후과의원 이외과의원 이원교내과의원 이지내과의원
이지영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진홍내과의원 이춘구의원 이충섭내과의원 이태관내과의원 이형룡내과의원 이홍내과의원 이홍철소아청소년과의원 익산내과의원
익산미소요양병원 익산병원 임계숙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의원 임실내과의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임지현내과의원 임진한내과의원 ㉨ 장기영정형외과의원
장내과의원 장대영소아청소년과의원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장용범내과의원 장현철내과의원 장희성내과의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내과의원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영민피부과의원 전일한병원전 중용소아청소년과의원 전종일내과의원 전주E재활의학과의원 전주더블유한방병원
전주정드림요양병원 전주가정의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내과영상의학과의원 전주늘사랑요양병원 전주드림내과의원 전주병원 전주비타민의원 전주선요양병원
전주에스한방병원 전주우리들병원 전주한양내과 전주항장외과의원 정내과의원 정덕영안과의원 정성산부인과의원 정영태안과의원 정읍함도외과의원
정읍내과의원 정읍사랑요양병원 정읍아산병원 정한샘내과의원 조수영소아청소년과의원 조용원정형외과의원 조은내과의원 조은마디의원 종삼의원
주내과의원 준피부과의원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중앙마취통증의학과 중앙의원 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지구촌내과의원 지리산한방병원 진이비인후과의원
㉩ 차경연산부인과의원 차병원 참병원 참사랑요양병원 참조은신내과의원 참좋은내과의원 척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청록요양병원 청춘내과의원
최상인내과의원 최수영내과의원 최수인내과의원 치유숲정신건강의학과 친철한신경외과의원 ㉪ 코뿔소내과의원 기본정형외과 키즈드림아이엠씨병원
㉫ 탐가정의학과의원 탐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 탐이비인후과의원 튼튼마디의원 튼튼한방병원 ㉬ 편한내과의원 평화로운내과의원 평화맑은신경과의원
포도나무요양병원 푸른가정의학과의원 푸른내과의원 푸른산부인과의원 푸른안과의원 피노키오소아청소년과의원 ㉭ 하가내과의원 하나외과의원
하나이비인후과의원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늘가정의학과의원 하늘내과의원 학문외과의원 학산요양병원 한국노인요양병원 한국신경외과의원
한국요양병원 한길요양병원 한녀여성의원 한마음산부인과의원 한마음안과의원 한마음요양병원 한빛정형외과의원 한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사랑산부인과의원 한사랑요양병원 한서요양병원 한솔요양병원 한양정형외과의원 한일정형외과의원 한호수내과의원 향도외과의원 해강내과의원
해맑은요양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해빛한방병원 행복나라요양병원 허기석내과의원 허원영내과의원 혁신가정의학과 혁신이비인후과의원
혁신편안내과의원 현대가정의학과의원 현대내과의원 현대이비인후과의원 현대중앙안과의원 현대통증의학과의원 현정례내과의원 해성병원 호남누가내과의원
호성전주병원 홍영민내과의원 홍외과의원 활기찬의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자내과의원 효자이비인후과의원 효정내과의원
효천연합내과의원 효천한방병원 힘내라정형외과

‘암환자에게 희망을’ 전주예수병원
첨단 초정밀방사선치료기 가동

8월 13일(화)
뉴시스



예수병원 암센터는 Versa HD의 도입으로 빠른 치료 속도와 정밀
함을 바탕으로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선량을 줄이고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 선선량을 증가시켜 치료 결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희관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은 “지역 암 환자들
에게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첨단 초정밀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했다”며 “고선량의 방사선을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해 정상조직
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암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8일(일)
닥터 MBC

고관절 질환

정형외과 김태호 과장



뼈 건강의 대표적인 척도는 골밀도인데요,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됩니다. 뼈 건강의 적신호 그 중에서도 인
체의 가장 큰 고관절에 대해 예수병원 김태호 정형외과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뼈
는 서로 연결되어 전체 골격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뼈와 뼈
가 서로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며 두 다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엉
덩이뼈를 고관절(Hip joint)라 정의합니다. 고관절은 골반의 컵 모양으로
생긴 비구 부분과 대퇴골의 동그란 머리 부분이 만나 형성된 우리 몸에
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1	06.20	더팩트	원주 세브란스 주디모레리 센터, 전주 예수병원 방문
2	06.21	이뉴스투데이	예수병원 이하은 과장, 신장학회 '신진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3	06.25	전북도민일보	피부과 이진호 주임 과장 "자외선 노출 피부암 유발 높아"
4	06.30	새전북신문	예수병원과 전주 왕의지밀 업무협약 체결
PMC NEWS는 병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5	07.04	전라일보	전주 은소아청소년과 이재은 원장,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기탁
6	07.12	노컷뉴스	'의료선교 허브' 전주예수병원, 다자간 가교 역할 수행
7	07.17	아시아투데이	전주 예수병원, 부천세종병원 주축 'SJ-CCN' 40번째 합류
8	07.21	전북중앙	예수병원,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호남권 유일 선정
9	07.21	새전북신문	예수병원-아이엠알엔,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협약
10	07.23	전북도민일보	정형외과 김경태 과장 '현대인 만성 손목 통증 손목건초염(드퀘르뱅병)
11	07.24	뉴시스	김유일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12	07.29	의학신문	전주예수병원,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3연속 1등급' 획득
13			예수병원 간호국, 맞춤형 간호인재교육 수료식 가져
14	08.23	NSP통신	전주 예수병원 '감염관리 주관행사' 개최
15	08.29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 의료선교병원으로서 역할 다해
16	09.04	전북도민일보	방사선종양학과 이희관 과장 "암은 더 이상 천형이 아닙니다."

1



원주 세브란스 주디모레리 센터, 전주 예수병원 방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주디모레리(의료선교)센터와 연원선교회 관계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의료선교 기관 탐방 및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예수병원은 전국에서 기독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7개 병원 연합인 '함께 나누는 선교 이야기, 미션톡'을 통해 주디모레리 센터와 선교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2



이하은 과장, 신장학회 '신진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예수병원 이하은 과장이 최근(2024년 6월 13일 ~16일) 열린 제22차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 학술대회와 제44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APCN & KSN 2024)에서 대한신장학회 신장학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신진 연구비'를 받았다.

3



피부과 이진호 주임 과장 "자외선 노출 피부암 유발 높아"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피부암은 일광욕을 즐기는 서양인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대 피부암 중 하나인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해 예수병원 피부과 이진호 주임 과장과 한 여름철 우리의 피부를 위협하는 질환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4



예수병원과 전주 왕의지밀 업무협약 체결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유)제이휴비앤비 왕의지밀(대표 손의준)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돕는다. 왕의지밀은 호텔 객실과 세미나실을 포함한 부대시설 제공을 협력할 예정이다.

5



전주 은소아청소년과 이재은 원장,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기탁

전주 은소아청소년과 이재은 원장이 4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재은 원장은 "예수병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아이들을 책임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소식을 들었다"며 "자랑스러운 의료진들의 수고와 예수병원 소아과의 발전을 위해 후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6



7



전주 예수병원, 부천세종병원 주축 'SJ-CCN' 40번째 합류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을 주축으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심장 및 대동맥 응급 수술 및 시술 협력 △환자리뷰 및 환자 정보 공유 △급성기 치료 후 최초 의뢰 병원으로의 환자 회송 협력 등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8



예수병원,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호남권 유일 선정

전주예수병원이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지정됐다.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에는 전주예수병원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창원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가 각각 선정됐다.

'의료선교 허브' 전주예수병원, 다자간 가교 역할 수행

탄자니아 의료진이 참여한 의료연수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예수병원 신장내과 투석실과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진행됐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와 예수병원의 인연은 신경외과 허승곤 교수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9



예수병원-아이엠알엔,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협약

벤처기업인 아이엠알엔은 간호 전문교육 기관으로 아가페방 문간호센터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산하에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예수병원과 아이엠알엔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상호교류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공동 협력, 간호인력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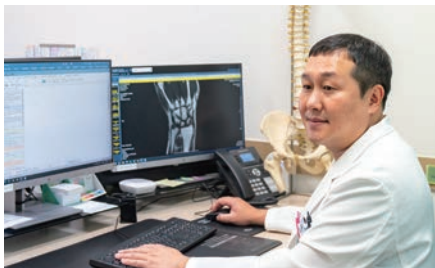
11



김유일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과학기술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유일 주임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작용 중 통증의학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으로 수상해 기쁘다”고 말했다.

10



정형외과 김경태 과장 ‘현대인 만성 손목 통증 손목건초염(드퀘르벵병)’

손목에 통증이 생기면 흔히 알려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도 착각하기 쉬우나,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좁아진 수근관에 의해 눌리면서 손목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두 질환은 엄연히 다르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만성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손목건초염(드퀘르벵 병) 질환과 치료법 등에 대해 예수병원 정형외과 김경태 과장과 알아본다.

12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3연속 1등급’ 획득

예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3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00.0점의 최고의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1차, 2차에 이은 3연속 1등급이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다지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평가이며,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입원환자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13



간호국, 맞춤형 간호인재교육 수료식 가져

예수병원 간호국(간호국장 한순희)은 8월 7일(수) 본관 4층 예배실에서 예수병원 맞춤형 간호인재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예수병원 맞춤형 간호인재교육은 도내 11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해 지난 7월 9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총 4회 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는 본원이 요구하는 맞춤형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 예비 및 신규간호사의 임상 간호현장 능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 되었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50명의 간호학과 학생이 교육수료를 마쳤다.

15



의료선교병원으로서 역할 다해

예수병원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은 국내의 선진화되고 우수한 의료기술과 체계를 해외 현지 의료인의 전문성 제고를 높이는 데 있다. 또한, 교육을 마친 연수생이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애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예수병원 선교국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실습 기간 중 태벤구니(Tabenguni Gracious.S) 학생은 심한 복통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의 수술비 지원과 김경진 산부인과 과장님의 빠른 수술로 여학생은 현재 회복을 마치고 건강하게 자국으로 지난 29일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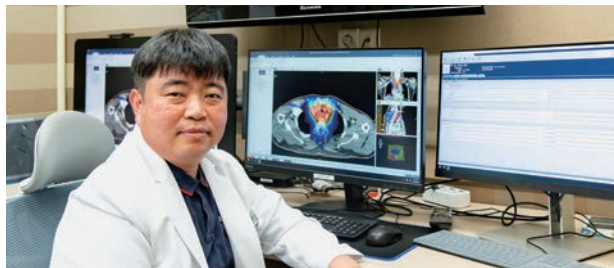
14



‘감염관리 주관행사’ 개최

이번 행사는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3일간 원내에서 흥미롭고 다채로운 테마로 진행됐으며, 이날 본관 4층 예배실에서 예방활동 홍보 및 시상을 진행했다. 직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감염관리실 사진전(PMC Infection control History)과 감염관리 콘테스트, 감염주의 스티커 작품공모를 전시했다.

16



방사선종양학과 이희관 과장 “암은 더 이상 천행이 아닙니다.”

암은 더 이상 천행이 아닙니다. 예수병원은 1960년대에 전국 최초로 암등록사업을 펼치며 국내 암치료를 선도하였고, 최근 초정밀 선형가속기를 도입하여 전국 최상의 수준의 암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이희관 과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망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50여명으로 2위인 52명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입니다. 특히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민간의료 선교병원이자
호남의 첫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이 개원 12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불꽃 같은 삶을 살며 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던
설립자 마티 잉골드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은 손길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예수병원은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진심 어린 의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손길이 모이면 건강한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발전 기금 후원 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전북은행 510-23-0317364 국민은행 751901-01-465000 농협 658-01-031404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주신 분 (6~8월)	5천만원 이상 도경희	3백만원 이상 맘외과의원(신행철) 박상호 임상과장회 전주중부교회 헤이우드	이원동 이철 임선웅 조신광 주니어임상과장회 최기숙	김효선(이강남) 다오라교회 박경환 박민숙 박용하 박혜리 새군산교회 선한목자교회 손종현 송현주 신우람 심선자 양석정 오지수 이광재 이노경 이상권 이유경 이진희 장훈 전세계활인소핑점 전주동인교회 조운열 조진웅 태양기계(주) 태인교회 한규담 한수정
	2천만원 이상 무명 윤용순	2백만원 이상 김영남내과	50만원 이상 강종대 고창성민중앙교회(임근영) 구분식 김경아 김서현 김선중 김영 전주예수교회	
	1천만원 이상 도병용 무명 박민 신세계정형외과(황승수) 유영근 은소아청소년과의원(이재은) 전북폐차장(신우종) 주명진	1백만원 이상 권태완 김영숙(진단검사의학과) 김원호(서울영상의학과의원) 김창국 김형민 노경희 박인숙(서울영상의학과의원) 신충식 예수병원 여의사회 이영재	10만원 이상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경진 김동진	
	5백만원 이상 PMC간호사회 김병선 이석재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총환	노인의학, 성인병, 감염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내분비내과 230-1300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	화, 수, 목, 금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류마티스 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용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수, 금	화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해외연수 (~24.11.30)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목	-
소화기내과 230-1300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수, 금	수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금	수, 목
	박상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화, 목
	이성욱	간, 담도, 위장관, 체장질환	-	목
내과	안종남	간, 담도, 위장관, 체장질환	-	수
	류재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목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순환기내과 230-1350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실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금	화, 금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화, 목	월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월, 수	월, 목
	문혜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	-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신장내과 230-1300	조아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화,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내과	혈액종양 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금	수
	마취 통증의학과 230-1580	김수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금	월~금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김정희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방사선 중앙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 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수, 목	화, 수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금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신생아 질환	월, 화, 금	월, 목	
	곽현미	소아 호흡기, 위장관, 내분비질환	목	월, 수, 목, 금	
	임선웅	소아응급	-	-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강동구	안면거상, 뽀뽀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신경외과 230-1420	허승곤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김호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화, 수, 금	월, 수	
	이대영	안면거상, 뽀뽀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You Make Me Warm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 -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